<>'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특출났다!

-송상현 김형오 김황식 이경숙 좌장, 박지향 서희경 박찬욱 윤평중 발제자 -"비민주적 자유주의의 모습을 보인다...퇴행하는 잘못을!"라는 윤 정부 비판도! 장장 4시간 진행한 세미나, 전무후무할 이런 특별한 공론장을 다시 보게될까?

인생기록을 세웠다. 세미나에 귀를 쫑긋 세우고 메모했다. 4시간 넘게 공부하듯, 귀를 기울였다. 촌철의 멘트들을 메모하고 되새겼다. 좌장은 1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 2부 김형오 전 국회의장, 3부 김황식 전 국무총리, 종합토론 이경숙 전 숙대총장.

발제자들 면면도 참 간단치 않고, 발제문도 논문 쓰듯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꼼짝없이 4시간을 붙들려 앉아 있었다. 고하 손자 송상현 선생께서 이사장인 더 플랫폼 포럼 (현병철 회장) 세미나는 특출났다.

한신대에서 리타이어 한 윤평중은 예리했다. 마지막 발제자는 "불리하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석이 많고, 시간 압박이 심해서라고 말이다. 철학자의 발제는 역시 현란하고 휘황했다.

아뿔사!

말미에 나온 윤석열 정부 비판은 통렬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이유에선지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이지만, 윤통이 아프게 새길만한 하다. 종합토론 때 '무엇을 어떻게...국정이나 정치 행태의 잘못을 들어보라' 하려다 관뒀다.

이 멘트에 답이 들어있어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각각 수정된 자유주의와 수정된 민주주의의 역사적 접합물로서, 그 안에 각기 내장된 본원적인 갈등을 체제 내적으로 감소시키고, 좀 더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진화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바뀌어 왔던 것이 세계사적인 모습이었다. 한국 정치사도 역시 그러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통치의 상당 부분은 그러한 '진화의 모습에서 퇴행하는 위험성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윤통 정권의 행태적 측면을 보면 알 수 있다. 귀를 열고 눈만 뜨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았다. 철학자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 했다.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두 날개로 한 공화국, 이게 바로 21세기적 인 좋은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이다.

토론자는 명문장가로 이름난 이우근 변호사였다. 오래 전, 중앙일보에 명칼럼을 오래 연재했다. 좌장 김황식 전 총리가 그를 소개했다. 인문교양이 풍부한 그에게 시간 압박부터 했다. "저하고 대학교 동창이고 판사도 같이 했고 또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

가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는 인문정신과 영성 회복을 강조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화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선진화는 사실은 인문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정신 고양은 문사철뿐만 아니라고 했다. 흔히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이라고들 한다. 여기에 더해 종교와 예술까지, 5가지가 인문정신을 개발하고 고양시킬 귀중한 자양분이란다. 나는 토론자의 인사이트에 무릎을 쳤다. 더디고 힘들지만, 거기에 답이 있을 거다.

종교가 유신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했다. "인간 내면의 깊은 영성적 측면을 인식하고 있는 한, 무신론자에게도 종교적 성향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보수적 토양에서, 가장 진취적역사를 만들어 갔던 바탕이 인문정신이라고도 했다.

"제가 인문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분열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법적인 선도적 역할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문사철뿐만이 아니라, 예술문 화계와 종교계 모두가 각성하지 않는 한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은 매우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정신은 실용적 정보만 마구 뽑아쓰는 지식의 하드웨어가 아니다. "오래 묵히고 삭힌 참 지혜의 바탕자리"라고 이우근은 이날 갈파했다. 문사철을 넘어 예술과 종교까지 아우르는 고 차원의 인문정신의 함양과 인문교육 말이다.

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진보사상은 '근본으로 돌아가자(Ad Fontes)'였다고 소개했다. 그것은 보수적 가치를 핵심으로 삼는다. 그 '오래된 새로움'의 깨우침, 보혁의 대립과 충돌만이 아니라 그 융화였다고 갈파했다. 개인의 진정성을 공공의 진정성으로 승화시킬 성찰적 시민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길 빌었다. 그는 인문정신의 고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며 말을 맺는다. 앞서 윤평중의 발제에 코멘트를 짧게 했다.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깊이 있는 성찰과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해주셨다"고.

좌장 김황식은 벗 이우근을 높였다. "법률가의 토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극동방송에서 칼럼을 낭독하고, LA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으니,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서 듣거나 읽어보십시오."

나는 사실 윤평중도 윤평중이지만, 박지향 교수의 발제를 듣고 싶어서 거기를 갔다. 박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를 잠시 했으니 선배다. 그렇기도 하지만, 역사학계의 족적도 굵고 깊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라는 주제의 박지향 발제도 특출났다.

토론자 임지현 서강대 교수는 빼어나게 압축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보였다. 두 번째, 서희경 박사(서울대 연구소)는 '8.15 광복, 건국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발제했다.

윤남근 변호사가 법률가답게 헌법 해석을 담아 발제를 보완했다. 2부 첫 발제자인 박찬욱 서울대 교수 역시 내공이 깊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민문화의 현 좌표'가 주제였다. 총선 D-240, 꼭 8개월 앞으로 다가온만큼 그의 발제는 따로 소개를 할 기회를 잡겠다.

토론자 이용식 주필은 40년 언론인답게 논점을 단디 짚는다. 개판 오분 전, 정치와 정치꾼들의 질 저하 현주소를 통탄하며 정치인 충원구조를 짚었다.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이 눈길이다. 발제자 양 박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통찰을 담은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글귀를 동시에 담았다. 2부 좌장인 명 진행자 김형오 전 의장은 이를 놓치지 않고 언급했다. '민주주의는 때때로 시도됐던 모든 다른 정부 형태들을 뺀다면 최악의...'

박찬욱이 각주에서 원문까지 친절하게 소개했다.

"Many forms of Government have been tried, and will be tried in this world of sin and woe. No one pretend that democracy is perfect or all-wise. Indeed it has beeb said that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ose other forms that have been tried from time to time..."

노벨문학상에 빛난 문장가 처칠의 통찰이 빛난다. 그가 갈파한 대로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다. 그 이전에 나온 모든 제도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두 번째,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국제적 위상,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연대' 주제로 빼어난 발표를 했다.

토론자 조태열 전 유엔대사는 깊이와 통찰을 담아 발제를 빛나게 했다. 너무 길어지니, 다음 기회에 한 두 분의 발제는 다시 소개할 생각이다. 종합토론에서 누군가 서희경 박사의 발제에 대해 조목조목 길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인상적이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취임사가 촉발한 건국절 논쟁과 관련해서다. 제헌의회의 속기록과 헌법 전문 만드는 과정을 꼼꼼하게 들이댔다. 좌장 이경숙은 섬세하게 마무리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애국가 4절을 참 오랜만에 불렀다고 운을 뗐다.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빠진 듯한 작금의 사생결단 식 진영 대립과 충돌, 대 혼란을 극복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머리 속이 아니라 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학총장을 지낸 분답게, 윤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한만큼 글로벌 시민 교육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무튼 자유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로 변질될 수 있다. 작금의 개딸들과 같은 팬덤들의 광포한 만행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수가 옳다고 우기면서 선한 소수를 짓누르고 겁박하면, 그게 당최 민주주의의 대의에 맞는 가? 1인 독재나 과두 독재만 독재가 아닌 것이다. 파시즘은 늘 선전 선동에 포획당한 대중, 다수의 지지에 힘입었다. 지금 '좋은 시민단체' 실종 사태다. 시민단체 역시 지난 정권 때는 국가권력에 포획당했다. 고 박원순의 공과 과가 있을 거다. 하지만, 그의 씻을 수 없는 최대의

죄악은 '시민단체의 정치화'를 부추긴 거라고 본다.

'시민단체와 국가권력의 일체화'는 참으로 비극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폐부를 찌른 건 윤평중이다. 단 두마디에 불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새길만하다. 발제자나 좌장들을 용대실로 한번 초치하시라! 이들의 고견을 경청해보시라!

#뱀발...도깨비

송상현 선생과 나는 인연이 깊다.

대학 다닐 때, 나는 사고뭉치였다.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경찰서 유치장에 29일간 갖혀있기도 했다.

80년인가, 대학동기들이 가정대 여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갔다.

나는 그때 무기정학 중이라 언감생심 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이철수가 학생회장을 하고, 친한 아이들이 주도한 행사라... 결국 갔다.

지도교수 중 한분으로 송 선생께서 '감시' 차 오셨다.

술자리마다 송 선생께서 옆자리에 앉으라 권하셨다.

요즘은 술이 약해졌지만, 젊은 시절에는 양주 2, 3병을 마셔도 끄덕도 않는 강골이셨다.

그런 선생이 어제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드렸더니, 날보고 "도깨비"를 연발하셨다.

동아일보를 다니다보니, 자주 선생과 마주쳤다.

술자리도 잦았지만, 이렇게 언급한 일이 없으셨는데...

소싯적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다보니 별명이 도깨비였다.

4선에 장관도 한 대학 동기 유기준이 붙여준 듯하다.

송 선생님이 최근에 가를 만났을까?

어떻게 별명을 알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실 때마다 "도깨비가 뭔 말을 해도 믿는다"고 연발하셔서 민망했다.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알찬 세미나를 준비한 더 플랫폼의 송상현 이사장과 현병철 회장, 실무진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한다.

비회원인 나를 초대한 건, 소같이 성실한 정용상 형이다.

미련한 소같이 뚜벅뚜벅 성실하게 살아간다.

가슴에는 열정을, 눈은 날랜 호랑이일 거다.

2, 아침 시글 공양

-오늘은 스마트폰 사진작가 여류 형 글부터.

그는 농민운동 환경운동 1세대로, 지금은 생명생태평화 운동에 그윽한 자세로 임한다. 빼어난 시를 쓴다.

사진을 곁들인 에세이들도 주옥같다.

#이병철 형

-태풍 카눈의 길목에서/

태풍 카눈이 지나고 있다. 아주 느리게. 뭍의 상륙지점이 여기서 백리, 고향 근처이다.

어제부터 비는 억수로 내리고 쉴새 없는 경고 문자들이 도착한다.

호우 경보 속에 퍼붓듯이 내리는 비 저 비는 어디에 있다가 저리도 쉼없이 쏟아지듯이 내리는가.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처럼 저리 내린 빗물이 마침내 가닿을 그 바다의 너른 품이 없다면 이곳 산자락까지 벌써 빗물에 잠겼으리라.

비바람이 나무를 흔들어 삭고 오랜 가지들과 뿌리 깊지 못한 것들을 뽑아내고 쌓이고 막혀 있던 것들을 휩쓸고 지난다.

태풍은 지구 어머니 가이아의 자정 노력, 자기 치유과정이라고도 말한다.

세워놓지 않았다면 넘어질 것이 없고 쌓아두지 않았다면 휩쓸고 갈 것이 없었을 것을.

이 모두 하늘과 지구 어미니가 함께 하시는 일, 다만 큰 탈이 없기를 기도할 뿐이다.

#김재봉 형

그리움 하나 / 서숙지

떠나와 생각한다 함께한 날들이 사랑이었음을

수평선 너머에 둥근 집을 짓고 너는 외로움에 떨고 나는 그리움에 죽고



#김성남 형

태풍을 기다리는 시간

천 길 벼랑 같은 사랑을 꿈꿀 나이도 지난 것 같은데 이 한여름에 목마름의 깊이가 아득타 영등포역 맞은편 사창가 골목에서 눈이 마주친 여인의 웃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종말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새로운 시간은 갈라 터진 목마름을 넘어 텅 빈 몸뚱이가 될 때라 읽었는데 아직 태풍이 오지 않는다 거센 바람과 빗줄기가 허공을 힘차게 가른 다음에야 얹힌 슬픔은 북받치는 울음이 되겠지만 어지러운 인간의 길은 범람한 강물이 투명하게 지우겠지만 태풍은 지금 적도 부근에서 끓고 있는가 짓밟힌 골짜기에서 몸 일으키고 있는가 차마 절망하지 못해서 아주 아프게 그러나 빗물에 씻긴 무화과나무 잎처럼 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가 목마름을 태울 새로운 목마름은 오늘을 절멸시킬 새로운 오늘은

─황규관(1968~) 시집, '태풍을 기다리는 시간', 실천문학사, 2011

https://youtu.be/4x1vLgLly84

#공병영 형